

瀟灑園圖와 (瀟灑園)四十八詠을 통하여 본

瀟灑園의 構成要素*

천 득 열

(전남대학교 건축과 부교수)

한 승 훈

(전남대학교 대학원)

1. 研究의 方法과 範圍 (序言)

본 연구는 瀟灑園의 원리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위하여 우선 실증적인 자료가 되는 <瀟灑園圖>와 <(瀟灑園)四十八詠>에¹⁾ 나타나는 소쇄원의 모습을 논거로 하여 소쇄원의 공간구성요소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소쇄원에 대하여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해석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소쇄원을 찾고 공간체계와 정서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난해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까닭에 우선은 무엇보다도 사실적인 현상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그런 후에 공간에 대한 관념적 해석이나 은유적 의미

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소쇄원의 造園者들이 과연 현재 우리의 해석처럼 그러한 의도에 의하여 소쇄원을 꾸몄을까 하는 의문을 일차적으로 하여 볼 필요가 있다.

소쇄원의 옛 모습을 묘사하여 제작한 「瀟灑園圖」는 현재 소쇄원의 현상을 고찰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줌으로써 공간구성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해준다. 특히 瀟灑園圖에는 하서 金麟厚가 지은 (瀟灑園)四十八詠이 장소 마다 마치 그 장소의 분위기를 노래하듯이 기록되어 있어 소쇄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큰 것이다. 또한 「瀟灑園四十八詠」은 소쇄원의 造營에 계재된 관념적이고 내면적인 의미를 살피기에 무척이나 소중한 글이다. 다만 四十八詠이 지어진 시기(1548년)와 瀟灑園圖가 만들어진 시기(1755년)가 200여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 본 연구는 <靑島建設>의 한국 전통건축 발전 연구기금으로 이루어진 것임.

** 본 논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산보의 15대손으로 현재 소쇄원을 지키고 있는 양재영씨의 도움이 컸음을 감사드린다.

1) 흔히 소쇄원48영이라고 부르나 瀟灑園事實의 瀟灑園題詠 부분에는 四十八詠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어 四十八詠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닌 불가피한 한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쇄원의 초창기 모습을 瀟灑園四十八詠에서 찾고 이를 검증하며 200여년이 지난 후의 모습을 고찰하기 위하여 瀟灑園圖를 준거로 삼는 것이다. 결국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소쇄원도에 나타난 구체적인 명칭과 瀟灑園四十八詠의 내용을 대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장차 소쇄원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나 본고에서는 소쇄원도에 명시되어 있고 그려져 있는 영역에 국한하기로 한다.

2. 瀟灑園造營의 意味

사적 304호인 소쇄원은 全南 潭陽郡 南面 芝谷里²⁾ 광주호 상류에 자리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무등산이 바라다 보이고 뒤로는 장원봉 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곳으로 무등산 원효계곡이 물줄기를 따라 내려오는 광주호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이 소쇄원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息影亭, 면양정, 송강정, 환벽당, 취가정, 독수정 등 많은 독립된 정자 원림들이 포치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쇄원이다.

소쇄원은 梁山甫(1503-1557)가 처음 터를 잡아 가꾸었던 別墅庭園이다. 별서란 크게 두가지의 뜻을 갖는데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는 곳”³⁾과 “國王과 국가실력자가 소유하는 일단의 토지”⁴⁾를 말한다. 소쇄원의 경우는 전자의 의미를 갖으며 살림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치 좋은 곳에 조성된 정원으로 전원생활과 문화생활을 함께한 공간을 말한다. 즉 소쇄원은 생활 기반인 창암촌과 지적인 곳에 위치하는 삶의 공간이며 사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강학하는 학문의 장소이며, 풍류와 위락의 공간으로 제공되어져 당대의 문인들이 누경가단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이곳은 風景에서나 意味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일명 지실, 지석, 고인돌마을, 관돌마을, 창암촌으로도 불리운다.

양산보의 본관은 제주이고 자는 彦眞이라 했으며 연산군 9년에 西倉⁵⁾서 羅州 伏龍洞에서 梁洵源의 세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의 행적은 확실히 알려진 바 없으나 벼슬이 宗簿寺의 주부에 이르렀고 그의 호가 蒼巖이라 하여 이 동네를 창암촌이라고 부른다.

양산보는 어려서 靜庵 趙光祖(1482-1519)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으나 당시 王道政治를 구현하고자 新進士類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시도하던 조광조가 南袞등 勳舊派의 대신들에게 몰려 화순능주로 유배되었다. 이때 양산보는 귀양가는 스승을 모시고 낙향했으나 조광조가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아 세상을 뜨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아 벼슬길의 무상함을 깨닫고 세속적인 뜻을 버린 채 산수의 경치가 뛰어난 이곳에 은둔하게 된 것이다. 이때 양산보의 나이는 18세였으며 창암촌의 산기슭에 소쇄원을 꾸미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다. 그는 이곳에서 성리학에 몰두하게 되는데 특히 宋의 周茂叔(敦頤)을 사숙했다.

가. 소쇄원의 조영시기

소쇄원의 조영시기를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짐작할 뿐이다. 여러가지 기록에 의하면 양산보가 乙卯士禍 후 바로 낙향하여 조영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시 20세 이전의 어린 나이로서 조영능력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간다. 또한 20세를 전후하여 과거에 실패

3) 樂嘉藻, 中國建築史 제1편 庭園項(윤국병, 고려시대의 정원용어에 관한 연구, 에서 재인용).

4) 周藤吉之, “麗末鮮初に於ける農莊に就いて”, 靑丘學叢, 제19호(1934), pp.1-80.(문화재관리국, 소쇄원보존정비계획 및 설계, 에서 재인용)

5) 일반적으로 지곡리라 알려지고 있으나 문중에서는 서창이라 함. 또한 1502년 조부 允信이 평안도 영변으로 부임 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 泗源이 羅州에서 昌平으로 이사간 시기는 1503년 이후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山甫의 출생지는 창평이 아니고 나주 伏龍洞일 것이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하고(1519년), 乙卯士禍로 낙향하고(1519), 喪妻(1527년)하는 등의 사건이 이어져 본격적인 소쇄원의 조영에는 깊게 관심을 갖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⁶⁾ 그러나 河西 金麟厚가 新齋 崔山斗에게 찾아가서 배울 때(丁亥; 1527, 김인후의 나이 18세)⁷⁾ 장성에서 화순 동북에 가자면 반드시 소쇄원에 머물렀다는 내용이 소쇄원사실에 나타나 그 시기를 추정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김인후가 18세때에 崔山斗에게 찾아가 배웠고, 향리 장성에서 머무는 기간이 18세까지였기 때문에 최소한 출생후로부터 17년이 경과한 때인 1527년경에는 무어라고 불렀던지 이미 소쇄원이라는 실체는 있었을 것이다.

소쇄원에 관한 뚜렷한 기록으로는 김인후가 嘉靖戊子(1528년)에 읊은 <瀟灑亭卽事>에 소쇄원에 관한 간접적인 내용이 나타나 1520년대 말에는 아직 소쇄원이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소쇄정으로 불리우는 초기적인 소쇄원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쇄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松江 鄭澈이 1576년에 지은 “瀟灑園題 草亭”이란 시에 의하면 자기가 태어날 때(1536년) 세운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소쇄정>을 <소쇄원>으로 바꾸어 부르는 등의 변화가 있다.

소쇄정이라는 명칭은 1534년에 지은 俛仰亭 宋守初의 詩(從弟梁彥鎮瀟灑亭 嘉靖甲午 俛仰 宋守初)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1540년에는 雙齊 李洙의 「次韻贈瀟灑翁 嘉靖庚子」가 보이며 1542년에는 宋純이 양산보의 소쇄원을 도왔다는 기록 「선생 50세에... 외종제인 양공산보의 소쇄원 일을 돕다.」(先生五十歲.....爲外弟梁公山甫 助瀟灑園)이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최소한 15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소쇄정이라는 소쇄원의 초기형식이 있었고 1530년대 중반에는 소쇄원이라 불리우고 지금의 모습처럼 이루어졌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겠다.

소쇄원은 정원을 꾸민 내용이나 규모로 보아

양산보 한사람의 구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나라 李德裕(787~849)가 경영하던 平泉莊과 이를 모방하여 한양 동쪽에 같은 명칭의 정원을 경영한 河西 金麟厚(1510~1560), 그리고 전남 담양군 봉산면 齊月里에 俛仰亭을 세운 송순(1493~1592)의 영향이 크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산보도 평소에 자제들에게 말하기를 「소쇄원은 어느 언덕이나 골짜기를 막론하고 내 발자국이 남겨지지 않는 곳이 없으니 平泉莊의 故事에 따라 이 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후손의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경고한다.」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현재의 소쇄원은 정원의 규모나 전후의 사정으로 보아 양산보 한사람의 힘으로 조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宋純과 金仁厚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며⁸⁾ 양산보 자신의 세대에 造園이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과 손자대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瀟灑園事實>을 비롯한 기록에 양산보의 후손들이 대대로 깊게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나. 소쇄원관련 인물

양산보는 소쇄원이 완성되자 바깥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 호를 瀟灑翁(혹은 瀟灑公)이라 부르며 뜻맞은 벗들과 교우하기를 즐겼다. 은둔생활에 들어간 그는 陶淵明, 周茂叔을 사모하며 그들이 저술한 列題, 歸去來辭, 五柳先生傳, 山海經, 通書, 愛蓮說, 太極圖說 등을 문방좌우에 비치하여 애독했다고 소쇄원사실은 전하고 있다. 당시 소쇄원을 찾아 시를 남긴 인사들 가운데는 그의 외종이 되는 俛仰亭 宋純(또는 企村), 양산보의 아들의 장인인 石川 林億齡, 河西 金麟厚, 高峯 奇大升, 鬻峯 高敬命, 圭菴 宋麟壽, 眉巖 柳希春, 靑蓮 李後白, 棲霞堂 金成遠, 松江 鄭澈, 玉峰 白光勳, 松湖

6) 문화재관리국, 소쇄원보존정비계획 및 설계, 1983, p.16

7) 丁益燮, 湖南歌壇을 背景으로 한 한 河西 金麟厚 研究,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河西紀念會, 143쪽

8) 정동오, 양산보의 소쇄원에 대하여, 한국조경학회지, No.3, p.23, 1973

白振南, 崎菴 鄭弘溟, 吳謙, 梁應鼎 등이 있다.

이러한 수 많은 문인들은 詩壇 혹은 歌壇을 이루었는데 글을 짓는 장소나 시를 짓는 장소라는 개념 말고도 문인들의 집단 혹은 시인들의 집단으로 쓰이는 것이 통례이다. 이들의 인맥을 보면 대부분 사제지간이 아니면 교우관계이거나 인척관계이다. 사제지간은 송순과 김인후, 임억령과 정철, 김인후와 정철, 기대승과 정철 사이이고 교우관계는 송순과 임억령, 정철과 고경명, 정철과 백광훈 사이가 그러하며, 인척관계는 송순과 양산보, 양산보와 양응정, 김성원과 정철 사이가 그렇다.⁹⁾

특히 소쇄원 주변에는 식영정가단, 면앙정가단 등이 형성되어 이들 가단들은 날로 발전, 융성하여 전국의 시인묵객들이 찾지 않을 수 없는 유명 가단이 되었던 것이다.

다. 소쇄원관련 자료

소쇄원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는 河西 金麟厚가 노래한 五言絶句 <瀟灑園四十八詠>(1548년), 霽峯 高敬命이 무등산 일대를 돌아보고 쓴 <遊瑞石錄>(1574년), <瀟灑園事實>(1731년)과 <瀟灑園圖>(1755년)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松江集, 棲霞堂遺稿, 河西集, 三淵集, 송천집, 俛仰集, 企村集 등에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목판으로 板刻된 瀟灑園圖에는 당시 정원의 배치와 구조, 造園 식물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근년에 들어 소쇄원은 정동오 교수에 의하여 학계에 소개된 이래 조경학이나 건축학의 연구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¹⁰⁾

3. 瀟灑園圖의 內容과 畫法

瀟灑園圖는 尤庵 송시열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알려지며 제작시기가 1775년 4월 하순으로 추정되는 가로 36cm, 세로 25.5cm, 두께 2cm의 양각 목판이다. 그 구성은 상부에 김인후의 “瀟灑園四十八詠”의 詩題가 있고 좌측에 제작시기인 崇禎 紀元後三乙亥清和浣刊昌平絶等齋齋即竹林¹¹⁾, 우측에 대표적인 장소와 시설 및 제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尤庵先生이 기록되어 있다. 송시열은 김인후와 양산보의 아들인 子澂과 김인후와 관련이 깊은 사람이고 子澂의 行狀을 지은 사람이기도 한다. 그러나 송시열의 생존연대가 1607년 부터 1689년이니 소쇄원도의 제작시기와는 거리가 있어 다소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송시열이 직접 소쇄원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송시열이 소쇄원을 보고 48영시를 감상하면서 소쇄원도를 그렸던 것을 후에 판각한 것이었던지 혹은 〇〇有尤庵先生手筆이라 써있는 것으로 보아 소쇄원내의 여러 건물내에 우암선생이 쓴 글씨들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五曲門등의 글씨도 우암선생이 쓴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소쇄원도의 뒷면에는 <濟州圖>가 그려져있다는 얘기와 제주도의 3대성인 梁, 高, 夫氏의 三姓廟圖가 그려져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후손들의 얘기는 후자이다. 송시열의 생존연대가 1607년 부터 1689년이니 소쇄원도의 제작시기와는 거리가 있어 다소 논란거리는 되나 결국 송시열이 소쇄원을 보고 48영시를 감상하면서 소쇄원도를 그렸던 것을 후에 판각한 것으로 짐작된다.

소쇄원의 영역이 어디에까지였느냐는 논의로

9) 丁益燮, 湖南歌壇을 背景으로한 한 河西 金麟厚 研究,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河西紀念會, 183쪽

10) 소쇄원에 대한 연구는 정동오 교수에 의해 수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그후 정재훈, 심경구, 한재수, 이재준, 김현 등에 의해 다수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문화재관리국의 보존정비계획 및 설계보고서가 있다.

11) 박선희은 <무등산>이란 책에서 竹林을 刊本이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소쇄원도에는 현재 소쇄원의 영역으로 이해되는 담장안의 영역에 대하여는 아주 상세히 나타내고 있다. 다만 담장 밖, 소위 外園의 영역에 대하여는 실제적인 거리에 관계하지 않고 담장의 외곽부분에 상징적으로 건물과 마을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다. 정원의 그림은 평면과 입면이 혼합해 그려져 있어 그림을 4방향으로 돌려보면 시점에 따라 보이는 경관이 나타나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시점을 주로 계곡의 양쪽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였으며 이동하는 시점과 관련시켜 제작되었다.

소쇄원도를 그 機能面에서 본다면 記錄繪畵性이 강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기록화는 제작당시 순전한 기록의 목적으로 제작된 그림이나 좀더 일반적인 의미의 기록화는 기록목적 뿐만 아니라 감상 목적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작된 그림으로 기록화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기법은 배치도 형식과 입면도 형식을 같이 지닌 것으로 물체와 경관을 표현하는 원근법이나 俯瞰法에 의하지 않고 단순화하였다. 물론 판화라는 점도 있지만 일반회화가 갖는 회화의 기법을 따르지 않고 건물의 배치도에서 흔히 취하는 기법으로 건물간의 위치와 규모 및 주위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설명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일단의 소구역내의 배치상황을 외형적인 건물의 입면도 또는 각이 없는 평행정투상도를 전개 또는 나열하는 형식을 통해 건축과 주변환경의 형태, 위치, 규모 및 상호관계를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는 유형이다.¹²⁾

이처럼 소쇄원도와 같이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에 여러 사물과 공간에 명칭이 구체적으로 부여된다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예이다. 이는 어떤 대상과 주위에 대해 그 장소가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준다고 할 것이다. 즉 어느 대상에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수단으로든지 그 특색을 파악하여 해석을 행하려는 것으로 그 의미에서 명칭부여는 대상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창조적 행위라 하겠다.¹³⁾

12) 박익수, 朝鮮時代 營建儀軌의 建築圖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67쪽

유감스럽게도 소쇄원도의 원전이 도난당하여 과거에 찍어놓은 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원전을 근간으로 근래에 제작된 몇 종류의 소쇄원도가 있는데 이들의 잘못된 부분도 차체에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4. 金麟厚와 (瀟灑園)四十八詠

金麟厚의 자는 厚之이며, 호는 湛齊인데 보통 자호인 河西를 더 많이 사용하여 세칭 하서이며 본관은 울산이다. 하서는 전남 장성출신이며 1510년에 태어나 1560년까지 살다간 학자이며 문장가이다. 그는 어려서 鄉里에서 慕齋 金安國과 新齋 崔山斗등에게서 18세까지 수학하다가 성균관에서 수업하였고 司馬試와 別試 文科에 등과하였고 홍문관 박사, 世子侍講院 說書가 되었으며 玉果현감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는 명종이 등극하던 1546년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속에 묻혀 講學과 詩로 말년을 보냈다. 그는 당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였으며 조경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이는 당나라의 李德裕가 경영했던 <平泉莊記>를 남긴 것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¹⁴⁾

하서는 星山 주변의 속칭 정자골에 있는 息影亭을 비롯하여 棲霞堂, 環碧堂, 소쇄원등에 수시로 출입하여 시작하였는데 소쇄원이 활동의 주무대였고 소쇄원에 관하여 많은 시와 글을 쓴 것을 볼 수 있다. 대강 보아도 16군데나 보이며 특히 瀟灑園四十八詠을 지어 노래하고 있다.¹⁵⁾ 하서와 소쇄원의 양산보와는 일찍부터 교우관계가 있었으며 사돈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곳 소쇄원에 자주 들러 기거 하였는데 四十八詠은 하서가 49세이던 1548년경에 읊은 것이다. 양산보가 孝賦

13) 金炫, 瀟灑園圖와 詩文分析을 통한 소쇄원의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2, 11쪽

14) 河西紀念會, 河西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1994
정동오, 瀟灑園四十八詠에 대한 조경사적 측면에서의 연구, 전남문화제 제5집

15) 나종우, 김인후의 河西集, 금호문화, 향토고전48

의 장편을 지었을 때 하서가 그 운에 답한 일도 있었다. 특히 하서가 젊어서 新齊 崔山斗에게 찾아가서 배울 때 최산두는 동북에서 15년 동안 자리를 짜고 있었다. 하서가 장성에서 그곳에 가자면 반드시 소쇄원에서 쉬었으며 양산보와는 도의의 사귀어 있었다. 또한 그곳의 수석과 過軸(시경에 나오는 말로 隱居樂道하는 현자에게 쓰는 말. 여기에서는 家君 양산보를 일컬음)을 사랑하여 한번 오면은 어느 때는 한달이 넘도록 돌아가기를 잊고 경적을 토론하고 우유상양한 나머지 문득 그 幽趣를 영변하여 술 한잔에 시 한편을 읊었다. 瀟灑園四十八詠은 이런 분위기에서 술 한잔 마실 때마다 한편씩의 시가 탄생하면서 지어진 것이다.

그러나 흔히 소쇄원48영이라고 부르나 瀟灑園事實에는 瀟灑園題詠 부분에 48영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어 四十八詠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5. 瀟灑園圖에 나타난 空間構成要素

<瀟灑園圖>에는 霽月堂과 光風閣등을 비롯한 건축물, 水碓와 上下池 및 石假山 등의 景觀物, 16종의 조경식물, 몇 가지의 축대와 五曲門 및 바위 등이 나타나고 있다. 瀟灑園圖에서 나타난 공간 구성요소들의 내용을 유사한 요소들끼리 묶어 나누어보면 建築要素, 石物要素, 水空間要素, 外園要素, 造景植物要素, 行爲要素 등으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다. 또한 <瀟灑園四十八詠>에는 瀟灑園圖에 보이는 경관, 건축물, 원림에 대해 노래하기도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나 사상, 감정도 표출되어 관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소쇄원 전체를 노래한 것이면서 그 공간에 담긴 가시적, 비가시적 요소를 총괄하면서 표현하고 있다. 각 詠마다 요소별로 시간이나 공간을 소재로 하여 소쇄원의 모든 현상과 형상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쇄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는 일차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자세히 그려지고 표현

된 <瀟灑園圖>와 <瀟灑園四十八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정리한 <표1>은 瀟灑園圖에서 보이는 空間構成要素에 대해 四十八詠과 관련지어 살펴본 것이며 四十八詠에 대한 내용은 <표2>에서 정리하였다.

즉 구체적으로 瀟灑園圖에서 나타난 건물과 풍경 등 공간 구성요소들이 四十八詠에 표현된 내용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 것이다. 또한 현재의 상황과는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고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쇄원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일차적인 시도가 될 것이며 瀟灑園圖에 나타난 요소들을 더욱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5-1. 建築要素

소쇄원도에 나타나는 건축요소들은 다양하다. 즉 그 語尾를 보면 〇〇閣, 〇〇堂, 〇〇亭, 〇〇精舍, 〇〇臺등으로 나타나 그의미를 짐작케 한다. 이처럼 좁은 공간에 다양한 명칭을 갖는 건물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특별한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의미로 閣이라 함은 석축이나 壇上에 높게 지은 집으로 격식이 다소 높은 건물을 말한다. 堂이란 주거형식으로 방이나 대청이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본체가 아닌 별당을 말하기도 한다. 亭이란 정자의 약어로 포괄적인 의미를 갖으며 精舍란 講學을 하기 위한 용도의 건물로 개인적인 서재나 私塾의 경우도 있다. 臺란 높이 쌓아서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나 그곳에 위치한 정자형식의 건물을 뜻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臺, 塢, 壇등도 건축적 요소의 범주에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가·光風閣 / [2詠] 「枕溪文房」 / 계곡을 베개삼아 글방을 차리니

양산보가 계곡 가까이 세운 정자를 光風閣이라

표 1. 瀟灑園圖에 나타난 空間特性別 構成要素

空間特性	構成要素	關聯48詠	現存與否	空間特性	構成要素	關聯48詠	現存與否
建築要素	霽月堂		○	造景物要素	蘭		×
	光風閣	2	○		竹	10, 30	○
	鼓岩精舍		×		蓴	41	○
	負暄堂		×		梅花	12, 28	×
	小亭	1	○		芭蕉	43	×
	五曲門	15	×		杏陰	15	○
	愛陽壇	47	○		冬柏·側柏		○
	待鳳臺	37	○		松	17, 26, 27	○
	梅臺	12	○		臥松		×
	挑塢	36	○		叢筠暮鳥	32	×
石物要素	담장	48	○	桐	37, 38	○	
	槐石	24	○	楓·槐	42	○	
	鼈巖	4	○	紫薇		○	
	廣石	13	○	柳汀	39	×	
	床岩	22	×	千竿	10	○	
	石假山	16	×				
水空間要素	榻岩	19	×	行爲要素	脩階散步	23	○
	水碓	7, 8	×	玉湫橫琴	20	×	
	小塘	6 (11, 40)	○	外園要素	竹林齋		×
	散池蓴芽	41 (11, 40)	○		鼓岩洞		○
	透竹危橋	9	○		絶等齋		×
	夾路脩篁	29	○		黃金亭		×
	略約	26	○		杏亭		×
	垣竅透流	14, 15	○		蒼岩村		×
槽潭	21, 25	○					
瀑	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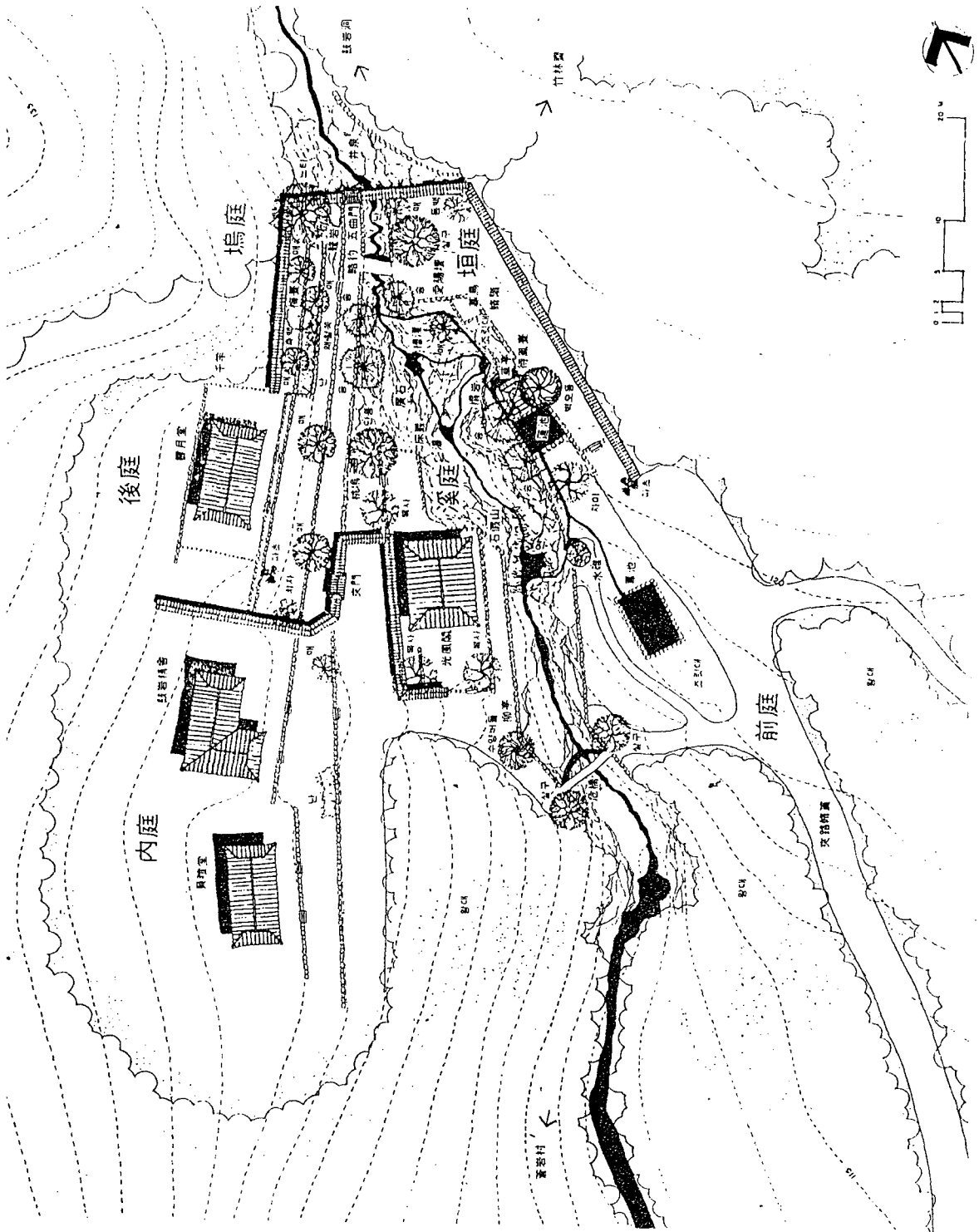


그림2 소쇄원 배치도 ; 문화재관리국 제작

하고 사랑채와 서재가 붙은 집을 霽月堂이라고한 것은 송나라 때 명필인 황정건이 春陵의 周茂叔, 周焯(1017-1073)의 인물됨을 얘기할 때 “胸懷灑落如光風霽月”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는 “가슴에 품은 뜻의 맑고 맑음이 마치 비 갠 뒤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과도 같고 비개인 하늘의 상쾌한 달빛과도 같네”라고 한데서 따온 것이다.

고경명의 『遊瑞石錄』에서 계류가에 있는 문방을 “마치 畫舫(채색치장을 한 유람선)과 같다”고 했던 것은 武夷棹歌 3曲 架壑船(절벽에 걸친 배)에 비유하여 그렇게 묘사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¹⁶⁾ 즉 架壑船은 상상컨데 옛날 큰 홍수로 배가 높은 곳에서 떠와서 물이 빠지자 땅에 닿았으며 세월이 흘러 썩어서 허물어졌는데 마침 산곡에 이것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상전해수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다.

四十八詠의 제2영 <枕溪文房>이란 머리말에서 개울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비의 방이라는 뜻인데 시귀에 의하면 “창은 밝고 침대는 맑으니, 그림과 글씨가 水石에 비치네, 뒤엎키는 착잡한 思念, 술개와 물고기인양 떠돈다”라 하여 동창이 밝아 진 계곡주변의 文房에서 느끼는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1574년에 쓰여진 <遊瑞石錄>에는 광풍각이라는 명칭은 쓰여지지 않고 小齋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1614년에 梁千運이 쓴 <瀟灑園溪堂重修上樑文>에는 溪堂을 침계문방 혹은 광풍각이라고 併記하고 있어 광풍각이 바로 침계문방임을 알 수 있는데 제월당이 주인을 위한 집이라면 광풍각은 객을 위한 사랑방이라 할 수 있다. 이 상량문에 의하면 광풍각은 1597년에 불에 타으며 1614년 4월에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溪堂>이란 명칭으로 보아 광풍각의 별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광풍각은 瀟灑園의 하단에 별당으로 건축된 正面 3間, 側面 1間 前後退의 팔작지붕 한식기와 건물이다. 中央 1間은 온돌방으로서 뒷면에는 90cm 높이의 함실 아궁이가 있다. 방의 문턱에는 머름대를 구성하였으며, 門은 3分間의 들어열개문으로

되어 있다. 막돌허튼층의 낮은 기단위에 덩빙주초를 놓고 方柱를 세웠으며 柱料와 小累, 장혀, 굴도리로 結構된 平5樑가구이다. 천장은 연등천장과 우물천장을 혼합하였는데 서까래가 모이는 부분은 눈썹천장으로 되어 있다. 처마는 흘처마이며 서까래는 선자서까래이다.

나 · 霽月堂

제월당은 정자라기 보다는 精舍 성격을 띤 건물로, 주인이 거처하며 조용히 독서하는 곳이었다. 즉 사랑채의 성격을 띤 건물로 제월당이 주인의 거처이고 광풍각은 손님을 위한 건물이었을 것이다. 堂號인 霽月은 비개 뒤 하늘의 상쾌한 달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쇄원도에 나타난 霽月堂이나 光風閣이 48영이나 遊瑞石錄에는 나타나지 않아 흥미롭다. 上記한 바와 같이 광풍각은 小齋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제월당은 유서석록이 제작된 당시인 1574년에는 아직 건립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瀟灑園의 內園에 있는 소재에는 武夷九曲에서 소재를 삼았을 법한 것들이 많은데, 즉 무이구곡에서 비롯되어 武夷精舍를 경영하였던 예와 같이 제월당은 4~5曲 간에 정사를 둔 것으로 구곡경영에서 상례로 되어 있었다.¹⁷⁾

그 건축형태는 正面 3間, 側面 1間的 팔작지붕 한식기와 건물이다. 소쇄원의 배면에 수개의 단을 올라 주거형식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前面에 마당을 두었으며 左側 1間은 다락을 둔 온돌방이며, 中央間과 右側 1間은 장귀틀과 동귀틀을 갖춘 우물마루구조인데 전면과 좌측면은 개방되어 있는 반면에 뒷면은 판벽과 판문으로 되어 있다. 기단은 막돌허튼층쌓기를 한 1m 30cm 높이의 기단위에 덩빙주초를 놓고 방주를 세웠으며, 도리와 장혀, 보아지로 結構된 平5樑가구이다. 천장은 연등천장과 우물천장을 혼합한 형태로 서까래가 모이는 부분에는 눈썹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처마는 흘처마이며 추녀 끝에는 팔각의 활주를 세웠

16) 정기호, 소쇄원의 경관과 건축, 「建築과 環境」 94년 6월, p.179

17) 정기호, 소쇄원의 경관과 건축, 「建築과 環境」 94년 6월, p.179

고 합각부분에서 우미량 형태의 층량이 보와 연결된다.

다 · 鼓岩精舍

精舍란 개인의 강학과 서재의 성격을 띤 건물로 瀟灑園圖에만 그려져 있을 뿐 현존하지 않은 건물이다.

소쇄원의 內園에서 담으로 구획된 영역의 바깥쪽에 있는 정면 3칸의 건물로서 堂號로 보아 瀟灑公(양산보)의 아들인 鼓岩公 梁子澂이 세운 것이라 생각된다. 48영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보아 소쇄원 조영초기에는 없었고 양자정이 居昌縣監을 제수받은 1570년경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瀟灑園圖에 의하면 정면 3칸 중 제일 왼쪽의 칸은 문이 표현되어 있어 방이라 생각된다. 瀟灑園圖에 나타난 건물들의 지붕 모습이 우진각지붕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고암정사의 지붕은 짧게 표현되어 이채롭다. 이는 좌측칸이 7자로 꺾인 지붕을 표현하면서 미숙하게 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기단에는 좌우측칸 앞에 계단이 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四十八詠에 특별한 기록이 없다.

라 · 負暄堂

瀟灑園圖에 만 있을 뿐 현존하지 않은 건물이다. 鼓岩精舍와 나란히 한단 낮은 위치에 인접해 있으며, 정면 3칸이다. 창이나 문을 표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단에는 좌우측의 양쪽칸 앞에 계단을 놓았다. 瀟灑園圖에 나타난 바로는 제월당 보다는 적고 광풍각 정도의 크기로 그려져 있다.

四十八詠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보아 소쇄원 조영 초기에는 없었을 것이며 宋純과 高敬命이 “負暄堂 主人 子淳”을 만나는 기록이 1574년에 나타나므로 양산보의 아들 양자정이 1570년경에 건립한 것이라 추정된다.

마 · 小亭 / [1詠] 「小亭憑欄」 / 작은 정자의 난간에 기대어

瀟灑園圖에 의하면 소쇄원에는 정자가 8개 있는데 四十八詠의 第一詠에 나타나는 “小亭憑欄”이란 詩題는 어떤 정자를 나타내는가? 광풍각이나 제월당이 정면3칸으로 일반적인 정자에 비하여 적지 않아 小亭이라는 의미에 적합하지 않고, 소쇄원 조영초기에 瀟灑亭, 小亭, 草亭등의 기록이 있으니 1영의 小亭은 광풍각과 제월당을 지칭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봉대 위에 있는 초정을 의미한 것 같다.

제1영의 詩題는 <小亭憑欄>이고 詩句에 瀟灑亭이란 내용이 들어 있다. 1영에 의하면 “瀟灑園의 경치는 통틀어 瀟灑亭이로세 우러러 보니 시원하고 귀에는 영롱한 소리”라 하여 소쇄원 경치의 중심이 소쇄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이때는 이미 소쇄원이라 부르던 시기이고 소쇄원의 중심이 소쇄정이 된다는 의미이다.

소쇄정이라는 명칭은 김인후가 嘉靖戊子(1528년)에 읊은 <瀟灑亭卽事>에 처음 나타나고 宋守初의 詩(1534년 ; 從弟梁彥鎮瀟灑亭 嘉靖甲午 俛仰 宋守初)에서도 나타난다. 송수초는 소쇄정을 <小閣>으로 비유하며, 곁에는 쏟아지는 폭포와 흐르는 개울물과 그 곁에 벽오동나무가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 시가 1534년에 읊었다는 점에서 소쇄정은 소쇄원에서 제일 먼저 세운 정자인 것 같다. 또한 <遊瑞石錄>에 의하면 “小齋의 남쪽에는 돌을 높게 쌓아 올려 그 위에 세운 小亭이 있는데 張傘같이 날개를 펴고 있었으며, 그 정자의 아래에는 작은 못이 패여 있다”고 한 것을 보면 小齋는 광풍각을 나타내며 小亭은 <대봉대>위에 세워진 초정을 말한 듯하다.

이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詩는 松江의 <瀟灑園題草亭>이다. 이 시에 의하면 초정은 송강이 태어날 무렵(1536년)에 세운 것으로서, 그 곁에는 벽오동나무가 서있고 그 아래는 개울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는 현재의 대봉대 위에 있는 정자를 말함이고 면앙이나 하서가 시체에 올린 소쇄정이나 제봉이 언급한 소정과도 같은 건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본다면 소쇄정은 양산보 생존시에는 소쇄원을 대표할만한 정자였

고 그 창건시기는 1534년 혹은 이 보다 앞선 시기라고 할 것이다.

4방 1칸의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초정은 1985년경에 재건된 것이다. 소재원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이는 이 소정은 시원한 벽오동 나무의 그늘에 앉아 봉황새(귀한 손님)를 기다리는 집이라 해석된다. 瀟灑園四十八詠의 주요한 視點의 하나로 여기에 서면 소재원의 모든 정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바·五曲門 / [15詠] 「杏陰曲流」 / 살구나무 그늘 아래의 曲流

담밀의 구멍으로 흐르는 계곡물(垣竅透流) 바로 옆쪽에 있었던 夾門 형식으로서 담밖의 영역(外園)과 담안의 영역(內園)을 이어준다. 현재는 담에 문자리 구멍만 뚫려 있는 정도이며, 이를 대신하여 담장에 글씨로 쓰여있다. 瀟灑園圖에는 略約을 건너 梅臺에 이르는 첫 단의 끝, 즉 담밀으로 흐르는 물길을 통과시키고 있는 담장의 주변에 五曲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瀟灑園四十八詠에는 제15영에 五曲流라는 귀절만 있다. 그렇다면 왜 이곳을 四十八詠에는 五曲流라 하였고 瀟灑園圖에는 五曲門이라 했을까? 소재원의 內園과 外園을 통틀어 파악하고자 한다면 무이구곡적 표현에서 오곡문 부분은 五曲에 해당되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다. 즉 五曲門 밖에 6곡에서 9곡까지의 영역이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이 추정이 옳다면 소재원은 外園으로 그 범역이 넓혀져야 할 것은 물론이고 오곡문의 정체와 四十八詠의 내용도 해석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오곡의 대표적 봉우리가 은병이라고 한다면 오곡류가 투류하는 담장은 바로 그 은병과 무이의 계류를 나타내고자 했던 의미로써 수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사·愛陽壇 / [47詠] 「陽壇冬午」 / 愛陽壇의 겨울 낮

애양단은 겨울철 북풍을 막기 위하여 세운 壇

으로 손님을 맞는다는 待鳳臺 바로 뒷편에 위치한다. 애양단에 관한 내용은 梁千運의 <瀟灑園溪堂上樸文>에 잘 나타나는데 待鳳臺, 觀德樹, 寒碧山등이 기록되어 있다. 길이 약10미터, 넓이 약7미터의 마당을 높이 약2미터의 담장이 7字로 둘러져 南西向하고 있으며 추운 겨울철이라도 별이 따사롭다. 瀟灑園圖에는 이곳에 난대식물인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다. 또한, 『瀟灑園事實』에서 瀟灑公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을 읽다보면 그에게서 스며나는 관념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孝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의 관념적 동기였던 孝는 겨울철 북풍을 막아주고 언제나 따뜻한 별을 준다는 의미부여의 과정을 통하여 애양단에서 구체화된 것을 읽을 수 있다.¹⁸⁾ 또한 애양단은 공간의 이중적 함축을 지니고 있다. 즉 황량함을 담장으로 막아 空間感(領域性)을 주고 햇살이 담에 비치어 따뜻한 질감을 주는 듯 하다. 이는 “단 앞 계곡은 아직 얼어 있는데, 단 위 흰눈은 모두 녹았구나. 팔배개하고 길게 누워 별든 경치를 바라보니 닭소리가 한낮을 알리누나.”라 하는 47영의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아·待鳳臺 / [37詠] 「桐臺夏陰」 / 桐臺의 여름그늘

귀한 손님을 맞이 위해 대를 쌓고, 정자(小亭)를 지었다. 즉, 待鳳臺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봉황새를 기다리는 桐臺」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그 곁에는 봉황새가 등지를 틀고 산다는 벽오동나무와 열매를 먹이로 한다는 대나무를 심었다. 또한, 입구 쪽으로는 上池와 下池가 있고, 바람을 막기 위해 愛陽壇이 바로 앞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瀟灑園四十八詠중 많은 구절이 적용되는 장소중의 한 곳이며, 제37영 「桐臺夏陰」에서 “바위 벼랑에 늙은 가지 드리웠고, 雨露받아 언제나 맑고 시원해. 태평성세 오래 살며, 지금껏 훈훈한 南風이 부네.”라 하여 桐臺주변의 분위기를 노래하였다.

18) 소재원사실의 孝賦등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양산보의 큰 가치규범이 孝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桐臺란 待鳳臺를 가리키는 듯하다. 이 待鳳臺의 넓이는 4m×2.5m이다. 현재 待鳳臺의 초정 옆에 심어진 오동나무는 瀟灑園圖에 근거해서 15代孫 梁宰寧氏가 최근에 심어 가꾸고 있다.

자·梅臺 / [12詠] 「梅臺邀月」 / 매대의 달맞이

소쇄원내에는 池臺, 桐臺, 梅臺, 待鳳臺등 4개의 臺가 있다. 그러나 지대와 동대는 四十八詠에는 詩題만으로 이용되었으나 瀟灑園圖에는 나타나지 않고 매대만이 그려져 있다. 梅臺는 梅花나무를 심어놓은 臺로서 四十八詠에서는 달맞이를 하던 곳이었다. 12명에 의하면 시제를 <梅臺邀月>이라 하여 매대에서 달을 맞은다 하였으며 詩句는 “숲끝의 臺는 그대로 넓어, 달이 떠오를 때엔 더욱 좋아라, 엷은 구름도 흩어지고, 차가운 밤만이 얼음에 비치듯”이라하여 매대에서의 달맞이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梅臺는 五曲門과 霽月堂 사이에 축조된 4단의 계단 중에서 상부 2단의 계단으로 된 花階로써 길이는 약 20m이고 높이는 약 1m, 나비는 1.5m의 크기이다. 이곳에 梅花나무를 심고 梅臺라 불렀다. 지금은 고사한 선죽백나무 한 그루만 서 있다. 늙은 산수유나무도 있으나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에 심은 듯하다.

매대 뒤 담장에는 송시열이 썼다는 「瀟灑處士梁公之廬」라는 글이 있는데 이는 소쇄원 전체를 뜻하는지 아니면 廬가 의미하는 오두막이 따로 있는지 분명치 않다. 일반적으로 廬라함은 자기집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겸손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 담장의 바로 뒤에 조그마한 壇이 있는데 이 단은 처사공의 祭壇이라고 전한다.

원래 양산보의 사우는 명옥헌 뒤의 道藏祠였는데 대원군 때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지고 제월당에 신위를 모셨었다.

차·桃塢 / [36詠] 「桃塢春曉」 / 복숭아 밭에 봄이 들다.

복숭아 밭, 혹은 동산. 桃塢는 光風閣 뒷편 언덕 위에 있는 복숭아나무 심은 작은 동산이다. 현재는 길이 10m, 나비 6m 가량의 넓이를 갖는 후원의 모습을 가진 공간으로서 복숭아나무는 없고 배롱나무와 산수유나무가 자라고 있다. 36명에 의하면 “복숭아 밭에 봄이 찾아드니 붉은 빛이 새벽안개에 낮게 퍼진다. 마치 아득하고 희미한 바위 동굴에 들어온 듯 이는 정녕 武陵溪谷이런고”라 하여 복숭아를 심은 곳에 풍경을 표현하였다.

카·담장(金河西長垣四十八詠手題) / [48詠] 「長垣題詠」 / 긴 담에 걸려있는 노래

소쇄원에는 몇개소에 담장이 들려져 있는데 이들은 外園과 內園을 구분지워주는 경계이다. 입구에서 北北東쪽을 향하여 愛陽壇까지 약 33미터(100척), 애양단에서 北西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오곡문을 지나 梅臺까지 약 20미터(70척), 이곳으로부터 南西방향으로 霽月堂까지 약 20미터(70척)가 되는 ㄷ자형의 담장이 축조되어 있다. 흙과 돌로 쌓여진 담장의 높이는 2미터이고 그 위에 기와가 덮여져 전통적인 양반집의 담장형식을 하고 있다. 다만 그 높이가 다소 낮아 방어를 위한 폐쇄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바람을 막아주고 경역의 한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매대 뒷쪽에 있는 담장에는 김인후의 글씨로 <瀟灑處士梁公之廬>라는 내용이 써있다. 입구에서부터 애양단까지의 직선적인 담장에는 金河西의 四十八詠이 목판에 刻해져 박혀 있었으나, 담장이 유실되면서 없어졌다. 四十八詠의 제48명에 의하면 “百尺의 긴 담장이 가로질러 마치 병풍을 두른 듯 하였으며 그 곳에는 새로운 詩들을 써 붙였다”고 하였으며 비바람에도 든든하다 하였으니 길이가 百尺이고 비바람에도 쉽게 도패되지 않았음을 암시해준다 할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소쇄원이 지내형국이기 때문에 담장을 쌓아 놓았다는 얘기도 있다.

5-2. 石物要素

가·槐石 / [24詠] 「倚睡槐石」 / 느티나무 옆 바위에서 즐다

梅臺의 맨 우측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돌이다. 四十八詠의 제24영에 의하면 “내 느티나무 옆 돌을 쓸고 홀로 앉아 있다 즐려 놀라 깨어 일어나니 개미에게 물릴까 두려웠다” 하여 느티나무 옆 바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내용은 大槐安國에 가서 南柯郡의 태수가 되었던 이야기인 南柯一夢고사에서 나타나 그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나·龍巖 / [4詠] 「負山龍巖」 / 산 앞의 자라바위(산을 등진 자라바위)

자라모양의 바위. 四十八詠의 4영에 의하면 “척척 청산을 등에 지고 푸른 계류를 향하여 머리를 돌렸네. 긴긴 세월 자리 잡혀 놀지 않으니 臺閣이 瀛州 보다 오히려 낡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뒷산인 청산을 배경으로 하고 앞의 계곡 물을 바라보는 위치를 짐작케 한다.

다·廣石 / [13詠] 「廣石臥月」 / 너럭바위에 누워 달을 바라보니

넓다란 바위(너럭바위). 폭포 위의 넓은 바위를 말한다. 커다란 암괴에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골이 파이고 그 주변이 넓어 이르는 표현이다. 四十八詠 제13영의 표현처럼 “푸른 하늘 달 아래 나와 누우니, 너럭바위가 돛자리 대신이로세, 긴 숲이 흘날리는 맑은 그림자, 밤 깊어도 잠이루지 못하는 구나”하여 넓은 바위의 모습을 적절히 나타내 주고 있다.

라·床岩 / [22詠] 「床巖對棋」 / 평평한 바위에서 바둑을 두며

바둑을 두던 평평한 바위 혹은 바둑판으로 사용했던 평평한 바위. 廣石 아래부분에 있는 평평한 바위를 말한다. 瀟灑園圖에는 두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四十八詠의 22영에 의하면 “바위 기슭의 넓고 평평한 곳에, 대숲이 그 절반을 차지했구나, 손님이 오자 바둑을 두는데, 어지러운 우박이 허공에서 흩어지네”라 하여 평평한 床岩은 좁고 그 주변에 대나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石假山 / [16詠] 「假山草樹」 / 佳山の 풀과 나무

마치 산처럼 생긴 바위다. 假山이란 인공적인 산을 말하는데 대개는 괴석으로 만든다. 16영에 의하면 “사람이 산을 만드나니 하나 그 산은 假山이 되었네 그려 형세따라 숲이 우거져 마치 버섯한 山野 그대로 이고”라 하여 石假山이 혹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瀟灑園圖에는 광풍각 동쪽에 그려져 있으나 지금은 없다. 瀟灑園圖에서 볼 때 가산은 다소 컸을 것으로 보인다. <溪堂重修上樑文>에는 <石假有山 面面題詩 字字萬意> 즉 돌로 이룬 가산에는 면면에 시가 있고 글자마다 뜻을 품고 있다고 하였는데, 가산에다 시를 새겨 놓았다는 뜻인 듯 하다.

바·榻岩 / [19詠] 「榻巖靜坐」 / 탑바위에 바로 앉아서

塔形으로 생긴 암석. 小瀑의 바로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함이다. 瀟灑園圖에는 사람이 정좌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19영에는 “깎아지른 벼랑에 오래 앉아 있노라니 골바람이 불어 깨끗이 쓸어주누나 무릎 상할까 두려움도 없이 구경만 하는 이 늙은이”라 하여 좁은 장소이지만 벼랑과 계곡, 바람 등을 나타내 마치 커다란 산 계곡에서의 풍경처럼 묘사하고 있다.

5-3. 水空間要素

가·水碓/[7詠] 「剝木通流」/나무흠통으로 흐르는 물, [8詠] 「春雲水碓

」/구름위로 오르내리는 물레방아

물레방아가 있는 물학을 의미한다. 小塘(上池)과 散池蓴芽(下池)의 물이 수로를 통해 흐르다가 가운데서 만나 물레방아를 돌리며 아래 계곡으로 흘러내린다. 지금은 그 흔적만이 있을 뿐이다. 7명의 시제에는 <剝木通流>라 하여 암반위로 흘러내리는 물을 나무 홈대로 끌어서 상하의 연못으로 보내어 채우는데 중간에서 갈라져 水碓를 돌린다고 노래하고 있다. 또한 7명의 시구에 의하면 “샘물이 졸졸 흘러, 높낮은 대숲 아래 못으로 이르니, 하늘에 날듯 물레방아, 고기비늘인 양 번듯 번듯 빛난다.”라 하였고 8명에 의하면 “종일토록 졸졸 흐르는 물의 힘, 절구공이 오를 때마다 그 그 功이 커, 선녀의 베틀인 양, 방아소리엔 가락이 멋져”라 하여 흐르는 물로 돌아가는 물레방아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물방아란 원래 水力을 빌어 곡식을 찧는 기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조경요소로서 장식적인 수차를 말하고 있다. 이는 水碓의 위치가 협소한 까닭도 있지만 瀟灑園圖에는 초가안에 수차만 그려져있기 때문이다. 건너편에 있는 광풍각에 앉아 수차가 돌 때 포물선을 그리며 쏟아지는 물의 약동을 바라보면서 즐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 할 것이다.

梁千運의 <溪堂重修上樑文>(1614)에서는 水碓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河西의 四十八詠(1548)이나 瀟灑園圖(1755)에만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양산보의 사망 직후에 없어졌던 것을 1717년 광풍각을 중수할 때쯤 복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나 · 小塘/[6詠] 「小塘魚泳」/작은연못에 물고기 놀고, [11詠] 「池臺納涼」/연못가에서 더위를 식히다, [40詠] 「隔澗芙渠」/개울건너 핀 연꽃

소쇄원도에는 두개소에 방지가 표현되어 있다. 소당은 작은 方池(塘)로서 물은 고목(剝木)(나무로 제작해 小亭과 獨木橋 사이에 걸쳐놓은 홈통)을

통해 공급된다. 즉 垣竅透流의 물은 槽潭으로 흘러 小瀑을 이루거나 剝木을 통하여 소당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小塘의 물은 다시 넘쳐 흐르면서 水碓를 돌리거나 아랫쪽에 있는 方池로 모인다. 四十八詠의 6명에 의하면 “方塘은 한이랑에도 미치지 못하나, 그런대로 맑은 물이 모일만 하네. 물고기가 주인의 그림자를 놀리어대니, 낚시대를 드리울 마음이 없구나.”라 하여 연못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池塘은 景園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경시설이다. 제6명의 <小塘魚泳>에서는 네모난 못에 물고기가 노닐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소쇄원에는 입구와 대봉대 사이에 네모진 못 두개가 만들어져 있다. 최근에 보수한 못의 크기는 上池(대봉대 아래)가 2.8 X 2.8미터이며, 下池는 5.5 X 4.0미터의 넓이다. 瀟灑園圖에 나타난 상·하지와 위치는 같으나 크기가 원형과 같은지 알 수 없다. 이 못의 특징은 중앙에 조그마한 섬이 없는 네모난 못이라는 것이다. 같은 시대에 만든 광주 충효동 환벽당의 못이나 1556년에 만든 경북 안동 陶山書堂의 淨友塘도 모두 중앙에 섬이 없는 네모난 못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 · 散池蓴芽/[41詠] 「散池蓴芽」/연못에 흩어진 순채 싹, [11詠] 「池臺納涼」/연못가에서 더위를 식히다, [40詠] 「隔澗芙渠」/개울건너 핀 연꽃

순채의 새싹이 못속에 흩어져 있다는 의미. 小塘보다 아래에 있고 약간 큰 규모의 方池(塘)의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이곳에서 넘치는 물이 넘쳐흘러 어디로 가는지 분명치는 않으나 그림으로 보아서는 水碓로 흐르는 것처럼 되어있다. 41수에 의하면 “張翰이 江東으로 돌아간 후에, 이 풍류를 아는 이 그 누구런가, 농어회도 미쳐 마린 못했으니, 오래 오래 물에 뜬 순채만 보소”라 하여 조그마한 연못에서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소쇄원도에는 물고기가 보이며 창포와 연을 키웠다고 한다. 또한 11명에도 연못가에서 더위를 식히

는 모습에 대한 표현이 있다.

라·透竹危橋 /〔9詠〕「透竹危橋」/
대 숲에 걸친 아슬아슬한 다리

瀟灑園圖에는 약작, 투죽위교, 협로수황을 따라 수박정으로 이르는 다리 등이 있다. 투죽위교란 대나무(사이)를 통과하는 위태로운 다리라는 의미를 가지며 危橋란 외나무다리를 말할 것이다. 외나무다리에 이르는 동선은 小亭쪽으로 향하지 않고 광풍각과 제월당, 고암정사와 부원당으로 막바로 진입할 수 있게 계획되었던 것 같다. 9영에 의하면 “골짜기에 걸쳐 대숲에 이었으니,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숲과 못(池)은 본디 아름다운데 이 다리로 해 더 맑고 그윽하네”라 하여 골짜기에 걸친 다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소쇄원도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투죽위교는 광풍각 아래에 쌓여진 축대의 끝부분에 걸쳐진 외나무 다리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현재 복원되어 있는 아치형의 다리는 그 위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夾路脩篁의 모습대로 복원된 것 같으나 협로수황의 위치가 소쇄원의 입구인 현재의 것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마·夾路脩篁 /〔29詠〕「夾路脩篁」/
대나무 숲의 오솔길

脩篁이란 왕대나무를 말한다. 소쇄원 입구쪽의 대밭사이에 난 길로서 불과 20여년전만 해도 무지개 모양의 아치를 그리는 原形을 가지고 있었으나, 새마을 사업과 마을 주민들의 경운기 통과 때문에 지금은 예전의 위치에 콘크리트 다리를 놓았다. 瀟灑園圖에는 마치 투죽위교의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 거리감을 파악하는데 혼란스러우나 실제로는 소쇄원의 입구에 협로수황이 있었다. 29詠에 의하면 “줄기는 눈속에서도 의연한데 구름 서린 가지는 곱고도 연해 늦은 꺾질 벗겨져라 지팡이 집고 새 줄기는 푸른 띠 풀고 나온다.” 대밭의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바·略約 /〔26詠〕「斷橋雙松」/ 斷
橋의 한쌍 소나무

담장을 뚫고 흐르는 垣竅透流의 계곡물을 건너기 위해 걸쳐놓은 외나무다리이다. 현재는 새로이 외나무다리를 길게 놓았다. 문자의 뜻대로라면 가느다란 木材로 되어있는 다리로서 계곡에 흐르는 물위에 걸쳐져 獨木橋의 형태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근래에 새로이 제작된 소쇄원도에는 이 약작의 바로 옆에 독목교라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어 혼란스럽다. 48영에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으나 유서석록에는 구체적으로 略約이라 하였다.

사·垣竅透流 /〔14詠〕「垣竅透流」/
담장을 뚫고 흐르는 골물,〔15
詠〕「杏陰曲流」/ 살구나무 그늘
아래의 曲流

五曲門과 연결된 담의 구멍을 통과해 흐르는 계곡물로서 四十八詠에는 五曲流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구불구불하게 그려져 있다. 오곡문 곁의 담장 아래편에는 두개의 구멍이 축조되어 있는데 높이는 약1.5미터이지만 나비는 1.5미터와 1.8미터이다. 이 累石에 의하여 축조된 流水口를 <垣竅>라고 부르고 있다. 14영에 의하면

한걸음 한걸음 물결을 보며 건자니, 한걸음에 詩 하나 생각은 깊어지고.

물의 근원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물 흐르는 담 밑만 물끄러미 바라보네.

15영에 의하면

줄줄 흘러 지척엔 연못인데 분명히 다섯번을 굽이치누나

옛날에 본 川의 모습을 오늘 살구나무 아래서 보누나

라 하여 오곡문과 흐르는 계곡의 물을 노래하고 있다. 이물은 폭포로 떨어지기도 하고 제7영에 나타난 <剝木>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나무흠통을 타고 연못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유서석록에는 “自闕牆通流”라 하였다.

아·槽潭 / [25詠] 「槽潭放浴」 / 조담에서 떡감다, [21詠] 「澗流傳盃」 / 흐르는 물에 술잔을 돌리며

五曲으로 굽이쳐 흐르던 계곡물이 잠시 모인 말구유통 같은 형상을 이룬 연못으로서 조담의 물은 다시 폭포(小瀑)로 흘러내려 운치를 더한다. 25영에 의하면

못물은 깊고 맑아 바닥이 보이는데, 미역 감아도 여전히 푸르르니.

세상사람 이를 믿지 않는다, 뜨거워진 바위에 맨발로 올라도 티끌이 묻지 않는 것을.

라 하여 떡감는 조그마한 못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21영에도 물이 돌고있는 모습을 표현한 구절이 있다.

자·瀑 / [38詠] 「梧陰瀉瀑」 / 오동나무 그늘아래의 작은 폭포

小瀑이라고도 하는 가느다랗고 작은 폭포로서 槽潭에 고인 물이 떨어지며 폭포를 이룬다. 38영에 의하면

듬성듬성 푸른 잎 그늘 아래로, 어젯밤 시냇가에 비가 지났네.

가지 사이로 폭포가 어지러이 쏟아지니, 마치 흰 봉황이 춤추는 모습 같네.

라 하여 폭포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유서석록에도 표현되어있다.

5-4. 造景植物要素

瀟灑園圖와 瀟灑園四十八詠에 나타난 식물은 19종이다. 이들 이외에도 각종 詩文에 나타나는 식물을 총괄하면 21종에 이른다.¹⁹⁾ 즉 創園 당시에 있었던 식물들이 그대로 있지 않고 없어지거나 새로운 수종으로 대체되었다. 소쇄원내에 있는 식물들은 일차적으로는 조원의 필수적인 구성요

소로서 의미를 갖고, 2차적으로는 그 조경식물이 갖는 관념적인 의미로서 그 뜻이 깊다.

가·蘭 : 蘭草

梅臺의 두번째 단에 있었다. 과거의 위치에는 현재 蘭이 없으나 주변에는 조그마한 야생란들이 많다.

나·梅花 / [12詠] 「梅臺邀月」 / 梅臺의 달맞이, [28詠] 「石跌孤梅」 / 돌받침 위의 외로운 매화

梅花나무를 심어놓은 梅臺에서 달맞이를 하며 詩興을 일으켰다. 최근에 후손인 양재영이 새로이 심었다. 石跌孤梅란 돌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외롭게 서있는 매화나무를 노래한 것이다.

다·芭蕉 / [43詠] 「滴雨芭蕉」 / 파초 잎의 빗물방울

霽月堂 앞 뜰의 담 옆에 심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파초는 전통적인 우리의 식물이 아닌 까닭에 약간은 이국적이다.

43영에 의하면 “은화살같이 쏟아지는 비에 파초 잎이 출렁이며 춤을 추네 빗소리 들으면 고향 생각질어 이 마음의 쓸쓸함이 가시는구나.”라 하여 주변의 분위기를 노래하고 있다.

라·杏陰 / [15詠] 「杏陰曲流」 / 살구나무 그늘 아래의 曲流

살구나무의 그늘. 살구나무로서 독목교를 건너기 전에 심어져 있다. 지금은 예전의 살구나무가 없다. 현재는 현재는 후손 양재영이 묘목을 심어 기르고 있다.

15영에 의하면 “지척이라 졸졸 물흐르는 소리 들리는 곳에, 분명히 다섯번을 굽이치누나, 옛날에 본 川의 모습을 오늘 살구나무 가에서 찾아보누나.”

19) 정동오, 瀟灑園四十八詠에 대한 조경사적 측면에서의 연구, 전남문화재 제5집

표 2. 瀟灑園四十八詠에 나타난 空間의 意味分析

詠	內 容	使用素材	意味分析				詠	內 容	使用素材	意味分析			
			시 각	청 각	심 리	행 위				시 각	청 각	심 리	행 위
1	小亭憑欄	小亭	○	○			25	槽潭放浴	槽潭,목욕	○		○	○
2	枕溪文房	光風閣	○		○		26	斷橋雙松	물,소나무	○	○	○	
3	危巖展流	계곡,폭포	○				27	散崖松菊	솔,국화	○			
4	貧山龜巖	자라바위	○				28	石趺孤梅	매화,바위	○			
5	石逕攀危	세갈래길,이끼	○				29	夾路脩篁	대나무숲	○		○	
6	小塘魚泳	小塘,물고기	○			○	30	迸石竹根	대뿌리	○		○	
7	剝木通流	고목,수대	○				31	絶崖巢禽	새,산비탈	○		○	
8	春雲水碓	물레방아	○	○			32	叢筠募鳥	대나무,산새	○		○	
9	透竹危橋	대숲,다리	○				33	壑底眠鴨	시냇물,오리	○		○	
10	千竿風響	바람,대나무		○	○		34	激湍蒼蒲	시냇물,창포	○		○	
11	池臺納涼	연못,바람	○		○	○	35	斜簷四季	월계수,梅,竹	○		○	
12	梅臺邀月	梅臺,달	○			○	36	桃塢春曉	복숭아밭	○		○	
13	廣石臥月	너럭바위,달	○		○	○	37	桐臺夏陰	동대,여름그늘	○		○	
14	垣竅透流	담구멍,물	○		○	○	38	梧陰瀉瀑	오동나무,폭포	○			
15	杏陰曲流	살구,계곡	○		○		39	柳汀迎客	柳汀,손님	○			○
16	假山草樹	인공산	○				40	隔澗芙蓉	연꽃,바람	○			
17	松石天成	소나무,돌	○				41	散池蓴芽	연못,張翰	○		○	
18	遍石蒼蘚	돌,이끼	○				42	澗紫薇親	백일홍	○		○	
19	榻巖靜坐	塔岩,바람			○	○	43	滴雨芭蕉	비,파초	○	○	○	
20	玉湫橫琴	거문고		○	○	○	44	映壑丹楓	가을,단풍	○		○	
21	復流傳盃	回流,술잔			○	○	45	平園鋪雪	쌓인 눈	○		○	
22	床巖對棋	바둑,대숲	○			○	46	帶雪紅梔	눈,치자	○		○	
23	脩溪散步	산보			○	○	47	陽檀冬午	愛陽壇	○	○		○
24	倚睡槐石	괴석,蟻王			○	○	48	長垣題詠	담장,四十八詠	○		○	

마 · 冬柏側柏

에양단의 모서리 담장 옆에 서있는 동백나무이다. 예전의 것은 없고 현재는 조그마한 묘목이 있다. 에양단의 의미를 부모에 대한 효의 관념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면 동백 역시 그 의미가 깊다 할 것이다.

바 · 臥松 : 누운 소나무/17영;松石天成/26영;斷橋雙松/27영;散崖松菊

소쇄원내에는 소나무가 많아 48영의 시제로 여러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소쇄원도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외송뿐이다. 가느다란 나무다리를 건너기 전에 누워있는 소나무이다. 1979년에 쓰러지고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유서석록에는 槽潭위에 걸쳐있는 老松이라 하였다.

사 · 叢筠暮鳥 / (32詠) 「叢筠暮鳥」 / 황혼의 대밭에 날아든 새

叢筠은 대나무 떨기로서 待鳳臺 근처에 심어져 있다. 큰 대나무가 아니라 덩불류로 자라는 山竹類로 여겨진다. 대나무 열매는 봉황의 먹이로 알려져 있어 더욱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暮鳥는 황혼이 들면 찾아드는 산새로 표현하여 노래하였다. 32영에 의하면 “돌 위 대나무 두어그루는 湘妃의 눈물자국 아롱졌구려 황혼이 되니 저마다 찾아드누나”라 하여 대나무와 새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

아 · 桐/(37詠) 「桐臺夏陰」/桐臺의 여름그늘,(38詠) 「梧陰瀉瀑」/오동나무 그늘아래의 작은폭포

오동나무로서 待鳳臺 위, 소정 옆에 심어져 있다. 봉황이 앉아 쉬는 나무인 오동나무를 심어 손님을 귀하게 맞이한다는 마음을 알 수가 있다. 봉황새는 오동나무가 아니면 등지를 틀지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앓는다는 전설이 있다. 현재는 새로이 묘목이 심어져 있다. 유서석록에도

벽오동나무가 있다는 유사한 표현이 있다.

자 · 紫薇 / (42詠) 「澗紫薇親」 / 계곡에 핀 백일홍 나무

小塘 아래에 있는 백일홍나무를 말한다. 백일홍을 배롱나무라고도 한다. 42영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꽃들은 도무지 十日紅이거늘 어이타 개울가의 저꽃은 百日을 붉게 아릅다운고”라 하여 백일홍의 지속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 백일홍은 소쇄원도에 표현된 위치뿐만 아니라 광풍각의 뒷편에도 오래된 것이 몇그루 남아 있다.

차 · 柳汀 / (39詠) 「柳汀迎客」 / 柳汀에서 손님을 맞다

물가의 버드나무. 광풍각 아래,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단에 있는 버드나무이다. 39영에 의하면 “한 나그네 대나무 문을 두드리니 여러번 소리에 놀라 낮잠을 깨어 大冠을 갖추고 맞으러 가니 벌써 말을 메고 柳汀에 서있네”라 하여 손님들이 이곳을 방문할 때 진입하는 방향과 내부공간으로서의 영역성을 나타내고 있다.

카 · 千竿 / (10詠) 「千竿風響」 /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

수많은 대나무가지 즉 대나무 숲을 말한다. 제월당과 매대 사이에 있는 대나무 숲이다. 소쇄원도에는 제월당 바로 옆에 대나무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으나 현재는 약간의 대나무가 담장 밖에 있다. 10詠에 의하면 “허공에 메아리쳐 그 소리 따라가면 고요해 무정한 바람은 대나무와 함께 밤낮으로 피리소리 어울리더라”라 하여 제월당 가까이서 들리는 대나무 소리의 운치를 표현하였다.

5-5. 行爲要素

가 · 脩階散步 / (23詠) 「脩階散步」 /

계단을 오르며

애양단 부근의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瀟灑園圖에는 계단이 표현되지 않고 두사람의 어른과 한 동자가 걸어가 있는 모습만을 나타내고 있다. 23명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티끌많은 세상의 잡념을 버리려, 자유로이 계단을 거닐은다오.

한가로운 마음으로 詩를 읊고 나니, 세상의 속된 일 잊혀져 가네.

나 · 玉湫橫琴 / [20詠] 「玉湫橫琴」 / 맑은 물가에 거문고 빗겨 앉고

거문고 타기가 쉽지 않으니, 세상천지에 알아듣는 이 없네.

한 곡조 몰속 깊이 메아리치니, 듣기도 좋고 마음도 즐거워라.

대봉대 아래의 맑은 물가에서 거문고를 빗겨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흐르는 물 옆에서 거문고를 타면서 흥을 돋웠을 것이다.

5-6. 外園要素

瀟灑園圖에는 담장안 뿐만 아니라 밖에도 여러 시설들이 표현되어 있다. 이들이 소쇄원의 직접적인 구성요소들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관계가 있었음은 분명할 것이다.

가 · 鼓岩洞

양산보의 아들 梁子徽의 호인 鼓岩을 따 부른 마을의 이름 혹은 동굴의 이름이다. 소쇄원에서 약간 오르는 뒷산에 동굴이 있다. 고암동을 마을로 보아야 할지 동굴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다. 양산보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長子が 子洪(花岩), 次子が 子徽(鼓岩), 막내가 子淳(支岩)이었다. 그 밖에도 副室에서 子湖가 있었다.

나 · 黃金亭

농부의 휴식을 위해 논 가운데 지어놓은 정자로서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옛터는 현재 논이다. 創園 당시의 詩文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口傳에 의하면 소쇄원 동구밖 약 50미터에 있었던 우물이었다는 설이 있다.

다 · 竹林齋

瀟灑園圖에는 애양단을 감싸고 있는 담장의 외곽에 그려져 있다. 그림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아 산등성을 돌아가는 곳에 위치하고 팔작지붕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에는 대나무가 그려져 있다. 口傳에 의하면 소쇄원 뒷산의 동북방향 500여미터 지점에 건물터가 있는데 이를 죽림재터라고 한다.

라 · 杏亭

蒼岩村 마을의 살구나무 아래 지어놓은 亭子이다. 소쇄원도에는 소쇄원의 입구에 정자명만 기록되어 있어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다. 구전되는 살구정터는 현재 논이다. 創園 당시의 詩文에 나타나지 않는다. 문화재관리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행정은 亭榭型이 아니고 危橋 西岸에 서있던 은행나무 두그루의 綠陰을 운치있게 杏亭이라고 이름지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마 · 蒼岩村

창암촌(一名 支石洞)은 瀟灑公의 본가가 있었던 마을이다. 蒼岩은 양산보의 선친인 梁泗源의 호로 여기에서 따온 이름이다. 양산원은 처음 광주 滄校에서 昌平의 支石洞으로 이주하여 자손들이 대를 이어 살고 있다. (瀟灑園事實 卷一)

그러나 창암촌과 支石은 가까이 있으나 엄연히 다른 마을로서 구분된다. 창암촌에 양산보의 본가가 있었다면 직선거리는 약 200여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바 · 絶等齋

소쇄원도에는 그려지지 않았다. 다만 소쇄원도의 좌측에 글자로 기록되어 있고 김창흡의 三淵集에 그 기록이 있어 근래에 제작된 소쇄원도의 모사본에 절등재라는 글씨가 써있어 다소 혼란스럽다.

6. 瀟灑園圖에 나타나지 않는 구성요소

소쇄원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소쇄원의 조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소쇄원도에 그려져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기도 하다. 장차 소쇄원의 종합적인 연구를 위하여는 이들에 관한 내용을 차체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내용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필자가 현재까지 자료를 통해 파악한 내용에 불과함을 밝힌다. 물론 이들 이외에도 마굿간, 가축들의 기거장소 등 관련 건물이나 시설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 水泊亭; 휴식을 위해 물가에 지어놓은 亭子로 창암촌 가까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을 수박정 거리라 부르고 있다. 瀟灑園圖에는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고 정자명만 표기되어 있다. 양산보의 선친인 양사원이 창암 못가에 자그마한 집(室)을 지었는데 찬물이 계곡을 이루고 한가하여 비할 바 없이 좋았다 하였는데(瀟灑園事實 券一) 혹시 이 건물이 水泊亭이 아니었나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水雲亭이라는 기록이 소쇄원사실에 나타나고 있어 수박정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궁금하다.

나. 寒泉寺, 寒泉精舍; 소쇄원사실과 松江集, 棲霞堂遺稿 등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다. 고암동 부근에 있다고 전한다.

다. 獨木橋; 독목교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자료를 찾기 힘들다. 다만 근래에 제작된

소쇄원에 約的의 옆에 글자가 씌여있다.

라. 觀德樹; 흔히 觀德亭이라고 부르는데 梁千運의 <瀟灑園溪堂上樑文>에 觀德樹라는 기록이 있다. 待鳳臺 가까이에 관덕사가 있고 그 주위에 매화나 단풍을 심었다 한다.

7. 瀟灑園四十八詠에 나타난 空間構成

四十八詠은 김인후가 1548년에 지은 五言絶句로 소쇄원의 건축물, 添景物, 조경식물, 날씨와 四季, 밤과 낮의 변화, 山居 등에 대한 노래이면서도 그 내면에는 그의 사상과 道義가 함축되어 있어 당시의 실상과 산거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이다. 즉 소쇄원 주변의 경승 48개를 뽑아 읊어낸 것인데 단지 그 경승만을 노래한것이 아니라 작자의 정신사상의 세계를 표출해 주었다는 점에서 깊이 음미해 볼만한 노래다. 48개의 경관을 무질서하게 나열한것이 아니고 소쇄원 전체의 구도적 형상미를 창출하기 위하여 하나하나의 경관의 배치를 질서와 조화를 주안으로 하여 안배한것을 볼 수 있다. 이 노래는 1단을 12수로 하여 4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은 序이고 2단과 3단은 소쇄원경에서 소요자적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이를 관조하면서 자연탐미의 경지에 드는 정경을 그렸다. 4단은 結詞로 자연경관을 빌어 태평성세를 기구하면서 瀟灑翁家의 무궁한 창성을 축원하고 있다.

건물로는 침계문방(광풍각)이, 구조물은 石逕(돌길), 夾路, 危橋, 斷橋가, 조경물은 小塘, 剗木通流, 水碓, 垣竅透流(流水口), 石假山, 長垣 등이 나타난다. 地物로는 바위(鰐巖, 廣石, 榻巖, 床巖, 槐石), 비탈(絶崖), 골(壑, 隔澗) 등이 나타나며 水景으로는 槽潭, 激湍, 曲流, 透流, 展流, 洑流, 玉湫 등이 묘사되고 있다. 植生은 竹, 梅, 杏, 松, 槐, 桃, 梧桐, 柳, 紫薇, 丹楓, 四季花, 梔와 같은 木本類, 菊, 芙蓉, 蕈, 芭蕉와 같은 草本類 및 이끼가 등장하며, 動物은 새, 오리가 등장한다. 空間

은 柳汀, 陽壇, 平園 및 梅臺, 池臺, 桃塢가 묘사되고 있다. 행동하는 모습으로는 기대고, 눕고, 앉고, 산책하고,弹琴을 연주한다든지, 바람쐬이고, 달을 쳐다보고, 즐기고, 목욕한다든지, 술잔을 권하고, 장기를 두고, 손님을 맞는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다.²⁰⁾

소쇄원의 현재 모습은 그동안 많은 변천을 거쳐온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모습을 묘사한 「瀟灑園四十八詠」이라든가 200여년 후인 1755년에 만든 「瀟灑園圖」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 것 같이 보인다. 다음에 정리한 <표2>는 「瀟灑園四十八詠」을 순서대로 음미해 보면서 엿볼 수 있었던 河西의 詩心과 그 詩興이 발동한 장소가 어디었나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 보았다. 이는 河西의 空間에 대한 認知能力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더러, 建築的 空間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적지않은 단서를 주고 있다. 많은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 「瀟灑園圖의 空間特性」과 중복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인후를 비롯한 士大夫들이 인지하고 느낀 소쇄원의 공간은 자연속의 공간 그 자체가 아니라 관념속의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공간구성요소들을 표현하고 노래할때도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관념적인 표현이 많다. 어떤 개체를 볼때도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않고 철학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표현이 관념화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자연을 도학적인 관점에서 보려했다. 때문에 자연현상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했으며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노래하려고 했다. 자연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류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도학에 젖은 사대부들의 자연관은 대개 유사한 의미표출 내지 의미부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즉 천지조화의 오묘함을 노래한다거나 道를 갈구한다거나 강인한 지조를 지킨다거나 고결한 심성을 찬미한다거나 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8. 소쇄원의 공간특성(結論)

소쇄원도에 나타난 각종 명칭과 48명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소쇄원의 공간구성요소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직설적인 표현이 있고 은유적인 표현이 있는가 하면 상징적이며 관념적인 표현이 있다. 양산보의 손자 양천운은 소쇄원의 승경을 중국 북경성에 있는 명산 武夷에 비교하였고, 丁益變은 사대부들의 도가적 관념의 실현장으로 이해하였고, 정동오는 48명중에는 神仙思想, 儒學思想, 泰平盛世, 守節, 脫俗등에 관련된 상징적인 표현이 나타난다 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瀟灑園四十八詠」에 나타난 각 空間의 意味는 視覺的·聽覺的·心理的·行爲的으로 구분할 수 있고, 「瀟灑園圖」에서 보이는 空間構成要素들은 건축적 요소, 石物要素, 水空間要素, 行爲要素, 조경식물요소, 外園要素등으로 구분되고 이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은 ○○이다.” 라든가 “○○에 ○○이 있다.” 라는 형식은 소쇄원도와 소쇄원48명에서 나타나는 구성요소들의 일차적인 열거와 조합이다. 이는 작자가 살아온 경험의 누적과 체득된 지식이 공간구성요소들에 부가된 것이다. 결국 육체적 감각에 의하여 나타나는 표현은 五感을 통하여 얻어지는 체험으로 示唆되는 것이다.

2. 정원을 꾸밀 때나 그 공간에서 느끼는 일 반적인 감성은 자신의 은연자중함, 안빈락도, 청빈함, 속세와 단절된 탈속의 관념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다. 조선조의 선비들이 갖는 사상적 흐름의 대상은 중국의 신선사상이나 도가적 사상이다. 소쇄원과 관련된 자들이 염원하는 대상은 이를 근간으로 현세적으로는 성리학이나 주자학을 실현코자 하였다.

3. 정원의 구성요소들은 인간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신선이 즐기는 것이다. 따라서 조그마한 미물일지라도 그 안에는 커다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三神仙山을 그리고, 不老長生을 원하며, 鳳을 기다리며, 오동나무를 심는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연과 벗

20) 문화재관리국, 소쇄원보존정비계획 및 설계, 1983, p.21.

삼아 고고하게 살가는 隱者의 모습과 효를 추구하며 태평성세를 소망하는 면모가 나타나고 있다.

4. 소쇄원의 경역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담장 안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무이 구곡으로서 공간의 의미부여와 공간의 확대 및 절점마다에서 분절의 과정을 통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정기호는 瀟灑園四十八詠에서 살펴볼 수 있는 소쇄원의 입지는, 양산보가 이 지역에 미친 학문적 영향과 함께 고려된 주변 경관과의 상관성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무등산과 웅정봉을 잇는 가운데 설정되는 空間軸上(山/묘 - 軸 - 山/굴)에 자리한 소쇄원(內園)의 立地性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建築要素는 視覺的 空間에 해당되며, 주로 대상 소재를 바라다보는 視點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1영에 의하면 瀟灑園 內園에서의 주된 視點은 小亭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주된 行爲空間의 中心도 建築要素일 것이나 四十八詠에 언급된 내용은 적다.

6. 石物要素는 경관구성요소와 더불어 인간의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진 行爲的 空間이다. 13영의 廣石(너럭바위에 누워서), 19영의 榻巖(담바위에 앉아서), 22영의 床巖(바위에서 바둑을 두며), 24영의 槐石(느티나무 옆 바위에서 졸다)과 같은 요소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石物要素는 여가시간에 휴식의 장소로서, 또 詩作 活動을 함에 있어서 주된 視點으로 이용되었다.

7. 水空間要素 역시 많은 제영에서 詩材로 사용되었으며, 주된 경관 구성의 요체가 되었음은 물론, 石物要素와 마찬가지로 휴식과 낚시, 목욕 등 여가 활동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특히, 15영(살구나무 아래의 五曲流를 노래) 등의 일부 제영에서는 성리학적 관점의 공간 해석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武夷九曲과 武夷棹歌의 텍스트(Text)에 의해 소쇄원 구성의 원리를 해석하였던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8. 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외피적 모습만이 아니라 造園의 바탕이 되는 道家的 원리나 조원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파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造園의 이며 건축적인 요소들의

집합체로서 이해된다. 즉 瀟灑園 內園은 古事成語(24영의 蟻王에 대한 古事나 41영의 張翰에 대한 古事 등의 예)를 텍스트로 한 소재로서 조원적 구성을 살필 수 있으며 소쇄원 내원을 구성하고 있는 두 건축물인 광풍각과 제월당을 통하여 傳統建築의 建築性을 생각할 수 있다.

9. 造景植物(生物)要素는 대상을 보는 그 時覺에 河西가 느낀 心理的 狀態, 또는 感想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소재로 쓰였다. 소쇄원의 자랑인 원림의 아름다움이 여러 제영에 담겨져 있다. 또한 行爲空間要素 즉, 인간의 행위 자체가 四十八詠의 詩材로 쓰인 것은 20영의 「玉湫橫琴(맑은 물가에 거문고 빗겨안고)」과 23영의 「脩溪散步(계단을 오르면서)」이다.

10. 48영중에서 여름경치를 노래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소쇄원의 경관이 夏景이 불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과 인공으로 오묘조묘하게 꾸며놓아 위치, 규모, 전망 등이 秋景 보다 夏景을 돋보이게 한다. 炎天에도 시원하여 피서에 알맞은 곳이기도 하다.

48개의 경관이지만 규모도 작고 위치도 좁을 뿐만 아니라 앞뒤가 막혀 전경도 여의치 않다. 때문에 하경으로는 어울리지만 추경으로는 원경이 막혀 그리 좋은 곳이 못된다. 따라서 원경보다는 소쇄원을 기점으로한 근경의 묘사에 치중한 것이라 생각된다.

The Elements of Soshaewon from the View of "Pictorial Map of Soshaewon" and "Forty-eight Poems"

Cheon, Deuk-You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Han, Seung-Hoon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oshaewon(瀟灑園) is the historical relic No. 34, and located in the upper part of Kwangju-dam in Damyang. It is a Byulseo-garden(別墅庭園), a retreated garden near residence, that is constructed by Yang San-Bo(梁山甫, 1503-1557) in 1530's. That is to say, Soshaewon is a space of life that is situated near the village called Changam-chon(蒼岩村), and a place to study, lecture and importune among literary men. Therefore, we can see that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architectural, landscape architectural, and literary aspects.

This paper is based on the "Pictorial Map of Soshaewon(瀟灑園圖, 1775)" and "Forty-eight Poems(四十八詠)" composed by Kim In-Who(金麟厚) in 1548. The "Pictorial Map of Soshaewon" which describes a vestige of Soshaewon makes it easy to understand the composition of space, by offering the important clues to the prototype of Soshaewon. Moreover, "Forty-eight Poems" are very valuable references from which we can consider an ideal and internal meaning of Soshaewon.

In this paper, the central objective is to observe the constituents of architectural space of Soshaewon; architectural, stone-built, water-spacial, landscape architectural, external-garden and behavioral elements. The research on Soshaewon is to be processed gradually in the future, but this paper is limited only to the areas presented in the "Pictorial Map of Soshaewon" and "Forty-eight Poems."